

목표달리

원광대병원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이 메디컬코아 2016 나눔 의료 기념행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시상식에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최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지하 1층 하모니볼룸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메디컬코아 2016 나눔 의료 기념행사 및 글로벌 헬스케어 유공 시상식을 받았다.

본 행사는 외국인 환자유치 활동과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여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한다.

원광대병원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 및 국가 경쟁력 강화, 우리나라의 해외인지도 및 신뢰 제고, 국내 인프라 조성 등에 있어 공로가 인정되어 본 상을 수상했다.

특히 원광대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해외진출 사업 분야의 의료인력 무상 연수 사업인 '한·몽, 한·러 연수 프로젝트' 사업에도 적극 동참해 왔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수협 경영정상화 위해 분주

사업비 확보·점포 확장도 이어지고 있어

군산수협(조합장 김광철)이 적자누적으로 인한 자본잠식을 벗어나기 위해 분주하다.

24일 군산수협은 지난 9월말까지 결산 2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흑자 실현을 위해 임직원들의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예탁금 증대와 우량 여신거래처 발굴, 불건전 채권 감축 등 수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를 추진한 결과이다.

조합원들은 수산업 규제 강화에 따른 출어 기피 등 악조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위기에 참여했으며, 그 결과 전년 대비 약 100억 원의 위관과도 신장되어 20억 원의 흑자를 실현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군산수협은 지난해에도 약 8억 원의 흑자를 실현했으며 지속적으로 당기 순이익을 실현하며 지도·경제·상호금융 등 모든 사업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사업비 확보와 점포 확장도 이어지고 있다.

수협은 선유도에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으며, 수산물 냉동·냉장시

설 신축 사업비 90억 원의 예산 또한 확보했다.

냉동능력 50T/D, 냉장능력 5,200M/T 규모의 수산물 냉동·냉장 시설이 완공되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외지 선박의 군산항 이용이 증가되어 1일 100여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어업인 출어 경쟁력 확보 등 원활한 수산물 유통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객 편의를 위해 오는 12월 해양동지점을 수산물연구개발센터로 확장 이전하고, 서울 중계점에 상호금융점포를 12월중 신설할 예정이다.

현재 수협은 군산시에 8개의 금융점포가 개설되어 있으나 군산시의 경제 규모 한계성으로 인해 예금 및 대출 증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수도권 담보대출 관리와 자산 재평가로 제2도의을 위해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고객층을 확보해 향후 금융환경에 대응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상호금융점포 신설을 추진한다.

신설 중계점 지점(가칭)은 강북의 강남으로 불리는 중계점 확원으로 상

권의 50%이상을 학원이 차지하고 있으며, 은행사거리를 중심으로 동산남북으로 1층 일반주거지인 아파트 30,000여 세대에 둘러싸여 있는 곳으로 고객접근성이 높아 향후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수협은 수산인과 어업인의 숙원 사업인 수산물연구개발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현재 소룡동에 위치한 가공공장을 오는 30일까지 이전한다.

이를 통해 수산물의 단순가공이나 저부가가치형 산업구조에서 탈피해 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HACCP)시설로 운영되는 첨단가공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개편해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의 수산물개발과 브랜드화로 지역특화산업의 전라적 육성 가능성이 커질 뿐 아니라 연간 10억 원 이상의 사업수익이 창출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광철 조합장은 "대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임직원과 조합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조합을 살리겠다는 의지와 노력이 빛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바탕으로 더욱더 정진하여 더 많은 흑자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산학협력 EXPO 교육부장관 표창 2관왕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종)가 지난 10월 20일~22일 2016 산학협력 EXPO에 참가해 산학협력 및 창업활성화 유공 관련 교육부 장관 표창 수상과 함께 다수의 산학협력 성과를 전시했다.

이번 행사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포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LINC사업협의회, 전문대LINC사업협의회, BRIDGE사업협의회 주관으로 개최됐으며, 382개 대학과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총 522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2008년부터 9회째 열리는 산학협력 엑스포는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모여 산학협력의 비전과 흐름을 공유하고, 다양한 산학협력 정책과 사업 및 성과를 공감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특히 국민들이 한 자리에서 사회수요 맞춤형 고등교육정책을 비롯한 교육 개혁의 추진 상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체할 수 있도록 2016 대한민국 행복교육리더십과 통합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엑스포에서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은 교육부장관 표창 2관왕을 달성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십여년에 걸친 산학협력 노하우를 바탕으로 2년 연속 LINC사업평가 최우수 등급의 성과와 함께 사업단을 이끌어온 원광대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이 산학협력 유공자 표창의 영예를 안았고, 지역 창업 활성화를 이끌어내는데 일조함을 인정받은 원광대 LINC사업단 창업교육센터 대대현 주임이 창업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받았다.

원광대학교 LINC사업단 송문규 단장은 "앞으로도 원광대 LINC사업단은 지역과 대학, 기업을 이어 모두가 산학협력의 승자로 발돋움하는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 수능시험대비 입시설명회

군산시는 오는 29일 군산시청 대강당에서 수험생 및 학부모 등 700여명을 대상으로 2017학년도 수능시험대비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입시설명회는 강남구청 인터넷방송이 후원하며, 강남수준의 학습전략 및 입시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유명 입시전문가 및 강사를 초빙해 1·2부로 나눠 2017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시간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부에서는 김대식 수험강사과 정승익 영어강사의 2017학년도 수능시험에 대비하는 학습전략과 함께 EBS 활용법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2부에서는 유이희 중앙교육 이승혁 입시전문가 2017학년도 대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입시전략을 소개하고, 그에 따른 수시 및 정시에 대한 노하우와 지방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입시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시설명회는 학업과 입시에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사전접수 없이 설명회 당일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인재양성과(454-2882)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어려운 이웃 나눔 실천 '희망동행' 착한가게 1호점

'생활용품 DC 백화점' 선정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종성회장)와 익산시 모현동주민센터는 24일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생활용품 DC 백화점(대표 김용모)'을 익산시 희망동행 "착한가게 1호점"으로 선정했다.

이날 희망동행 착한가게 1호점 탄생 행사에는 정동호 전북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이해석 익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장학 익산시주민생활지원국장, 안병진 모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등 모현동주민 50여명이 참석했다.

착한가게란 매월 최소 3만원 이상 매출의 일정액을 복지사각지대에 있

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가게다.

봉사와 기부를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자원자들이 나눔에 동참해 우리 주변의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돕는 가게다.

이번에 익산시 희망동행 착한가게 1호점으로 탄생한 생활용품 DC 백화점 김용모 대표는 모현동 희망동행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10년 전부터 지역 내 저소득층을 위해 백미, 전기장판 등을 꾸준히 후원하고 있다.

모현동주민센터 김성도 동장은 "익산시 착한가게 1호점이 모현동에서 탄생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

다"며 "이번 행사가 지역주민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후원금 모금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모현동주민센터는 지난 9월 28일 이웃이 이웃을 돕는 지역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모현동주민센터·모현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시간 희망동행 후원금 협약식을 체결하여 별도의 모금계좌를 개설하고 모현동의 어려운 주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 드림스타트, 아동양육 위한 자원편람 제작

군산시 드림스타트가 아동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는 기관 및 서비스 자원편람 400권을 제작해 드림스타트 대상 전체 가구에 전달했다.

이번 자원편람 제작은 군산지역의 보건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관, 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육아서비스 자원을 안내하는 내용을 담아 드림스타트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다.

아동양육 자원편람은 ▲응급상황 발

생시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 정보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보육시설 정보 ▲지역아동센터·청소년복지시설 등 다양한 복지기관 안내 ▲아이들이 이용하는 도서관·장난감도서관·키즈카페 등 지역사회 문화정보 ▲아동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정보 ▲사회복지·보육관련 민간 자원서비스 정보와 가정생활에 유용한 사이트까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제작됐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경찰, 전국등 경찰서 되기까지 활약상 담은 서적 출간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2016년 치안성과평가 전국 1위의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의 군산경찰 활약상을 담은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라는 서적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군산경찰은 이번 서적 발간을 통해 전국 1등 경찰관서가 되기까지의 애환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경찰관으로서 성공적인 삶과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를 되새기는 계기를 마련했다.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는 김동봉 서장 취임 이후부터 군산경찰 내부에서 운영해 온 '군산경찰통보'이라는 밴드에서 서로를 칭찬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며 게시된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표현한 군산경찰의 역동적인 이야기이다.

김동봉 서장의 프롤로그, 군산대학교 내의균 총장의 추천 글, 치안성과 1위라는 영광과 환희의 순간을 맞보기까지 그 뒤안길에서 느낀 희로애락으로 구성된 이야기가 3개월의 대장정을 거쳐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됐다.

서적에는 표제적인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를 비롯해 '대한민국경찰 나는 누구인가', '추적수사의 달인! 금은방 절도범의 최후', '달로별 여성인식 프로젝트', '우리에게 지키는 영웅, 슈퍼맨이 나타났다' 등 총 179개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또 군산경찰 한명 한명이 범죄 현장에서, 때로는 동료 간 화기에 애한 분위기 속에서 또는 이웃과 함께 하면서 실제로 경험한 이야기를 엮음으로써, 경찰이 시민들에게 전하는 사랑, 배려, 희망, 위로 등의 메시지를 진솔하게 표현했다.

책을 받아본 직원들은 "긴장과 절박함 등 생생감 넘치는 범인검거 이야기, 시민을 위한 사랑 등 우리의 노력과 헌신이 함축된 책을 보니 자긍심이 느껴지며 읽을수록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라는 생각이 든다"며 "책을 발간한 자체가 큰 기쁨이자 자랑이며, 어떠한 베스트셀러보다 마음에 와 닿는다"고 입을 모았다.

군산경찰은 협력단체원, 경찰가족, 전출 직원 등 군산경찰과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산경찰서는 2016년 치안성과평가 전국 1위의 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 동안의 군산경찰 활약상을 담은 '정말! 대통령표창 받을만 했나요'라는 서적을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출간한 책을 전하며 군산경찰의 열정과 변화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해 나갈 예정이다.

/군산=문정근기자

한국청소년전북연맹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 방문

특전사 예하 제7공수특전여단은 지난 22일 한국청소년전북연맹 소속 초·고교생 240여명 대상으로 부대방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7공수특전여단 부대소개 영상 시청-특전장비 전시특공무술 관람-기념식 환영-역사관 및 생활관 견학-레벨·마티워 훈련 사법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부대방문행사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미륵사지와 왕곡리석탑을 탐방하는 한국청소년전북연맹의 '세계유산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강한 특전부대를 눈으로 확인하려고 방문하였으

며, 행사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배운의 후예'를 통해 더욱 잘 알려진 2면면 되게하리!'는 세계최강 특전사 장병들의 강인한 모습과 일상을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특히, 행사 간 7공수특전여단 장병들이 선보인 레벨훈련과 함께 가장 공포를 많이 느낀다는 11m 높이에서 두리움 없이 뛰어내리는 마티워 사법, 강인하고 절도 넘치는 특공무술 사법을 통해 학생들 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한 교사 및 한국청소년전북연맹 관계자들에게도 큰 박수와 호응을 얻기도 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익산시, 지역특성 고려 재난대응 현장훈련

익산시는 2016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난대응 현장훈련을 24일 오후 예술의전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군부대(제7577부대, 제9585부대 3대대), 한국전력의 산지사, KT익산지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대한적십자사 전북네트워크서비스, 익산시자원봉사단, 자율방재단, 관내 병원 21개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500여명의 인원이 참여하고, 헬기, 구급차 등 장비가 투입된 가운데 테러진압 및 화재붕괴 긴급구조 현장 훈련이 실시됐다.

이번 훈련은 예술의전당에 침투한 테러범 진압훈련과 가스 누출 폭발로 건물 붕괴 및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가상 상황을 설정해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위기관리 역량 강화와 위기대응 능력 확립에 목표를 두고, 재난 발생 원점에서 민·관·군·경이 통합된 초동 조치 절차를 숙달하여 대형 재난에 대비한 훈련이다"며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 간 공조·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익산=장왕원기자